

2007년 임금동향과 2008년 전망

강승복·이병희*

I. 2007년 임금동향

1.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5% 중반의 임금상승률 유지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2007년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683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는 2006년 임금상승률 5.7%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2007년에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의 3.3%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처럼 2007년 임금상승률이 전년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은 2007년 실질경제성장률이 전년(5.0%)과 유사한 4.9%를 유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노동부 자료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 1~4인 규모 및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에 나타난 2007년도 월평균 임금총액은 1,745천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승률은 2006년의 3.9%보다 높아진 5.4%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실질임금 상승률을 계산하면 2007년에도 2.8%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의 1.7%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그림 1]에서 「매월노동통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간 실질임금 상승률의 격차가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줄어든 것은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의 실질임금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kangsb@kli.re.kr).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lbh@kli.re.kr).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007년 임금상승률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정액급여 상승률은 6.3%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하였고, 초과급여 상승률은 5.5%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하였다. 초과급여의 비교적 저조한 상승률은 초과근로시간이 2.3% 하락한 것에 기인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의 감소는 경기둔화로 인한 초과근무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특별급여는 전년에 비해 2.9% 상승하여 전년의 상승률 2.4%에 비해 0.5%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표 1 참조).

<표 1>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단위: 천 원/월, 시간/주, %)

		2003	2004	2005	2006	2007
노동부	임금총액	2,127 (9.2)	2,255 (6.0)	2,404 (6.6)	2,542 (5.7)	2,683 (5.6)
	정액급여	1,532 (8.8)	1,636 (6.8)	1,756 (7.4)	1,874 (6.7)	1,992 (6.3)
	초과급여	135 (7.3)	137 (1.7)	149 (8.7)	158 (5.4)	166 (5.5)
	특별급여	460 (11.4)	482 (4.6)	499 (3.5)	511 (2.4)	526 (2.9)
	총근로시간(주)	45.6 (-0.7)	45.4 (-0.5)	44.9 (-1.1)	44.0 (-2.0)	43.4 (-1.5)
	정상근로시간(주)	41.6 (-0.5)	41.6 (-0.1)	40.9 (-1.7)	40.1 (-1.9)	39.5 (-1.4)
	초과근로시간(주)	4.1 (-2.2)	3.8 (-5.1)	4.1 (5.4)	3.9 (-2.8)	3.8 (-2.3)
통계청	임금총액	1,466 (10.7)	1,542 (5.2)	1,593 (3.3)	1,656 (3.9)	1,745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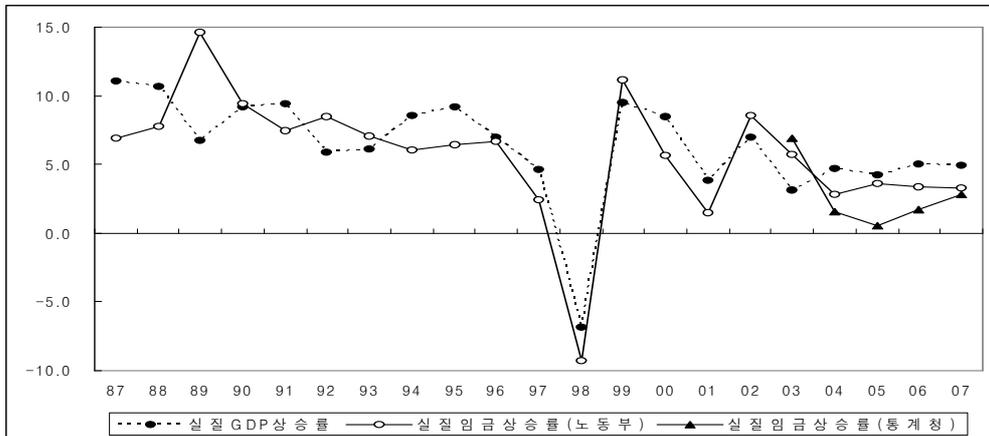
주: 1) 노동부 자료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통계청 자료는 전체 근로자가 대상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1]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



주: 노동부 자료는 시계열의 일치를 위하여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2. 노사간 협약임금 인상률은 전년과 동일한 4.8% 기록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이루어진 임금교섭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노동부의 「임금교섭 타결현황」에 따르면 2007년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4.8%로 나타나 전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 중 공공부문은 전년보다 하락한 3.2%, 민간부문은 전년과 동일한 4.9%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또한 5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인상 폭이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유노조 사업장보다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인상폭이 크게 나타났다(표 2 참조). 최근의 협약임금 인상률의 추이는 2002년 이후 대체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여준다(그림 2 참조).

한편, 2007년도 임금교섭 타결사업장 중에는 13.7%가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였는데 동결 및 삭감 비율은 대규모 사업장보다 소규모 사업장이, 무노조 사업장보다 유노조 사업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은 임금교섭 진도율을 월별로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교섭타결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이는 노사간의 임금교섭 시작시점 자체가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섭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는 최근의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2〉 사업장 규모별 임금교섭 타결현황(2007년)

(단위: %)

	임금인상률	동결·하향조정 비율
전 체	4.8(4.8)	13.7(18.4)
공공부문	3.2(3.5)	-
민간부문	4.9(4.9)	-
300인 미만	5.1(4.8)	15.0(20.9)
300~500인 미만	4.9(5.0)	11.0(14.3)
500~1,000인 미만	4.6(5.0)	9.4(8.5)
1,000~5,000인 미만	4.6(4.7)	7.8(8.8)
5,000인 이상	4.9(4.7)	4.1(9.4)
노조 유	4.5(4.6)	16.8(17.1)
노조 무	5.4(5.2)	10.9(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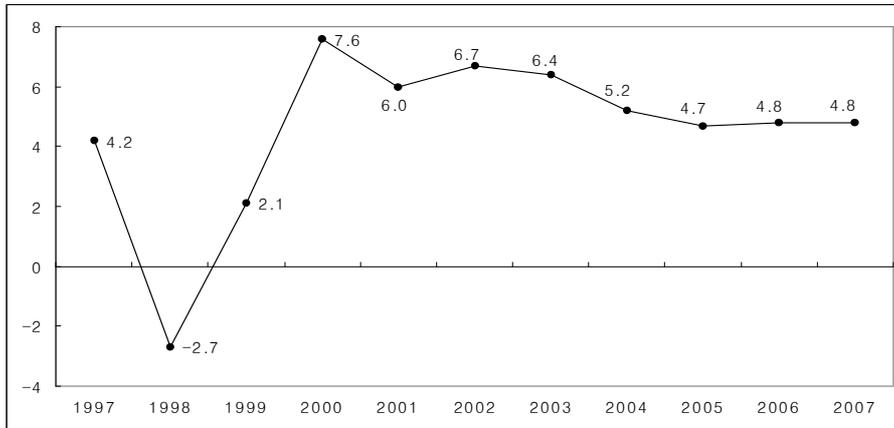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6,561개 사업장 대상 조사임.

2) ()안의 수치는 전년 통계임.

자료: 노동부(2008. 1), 『임금교섭 타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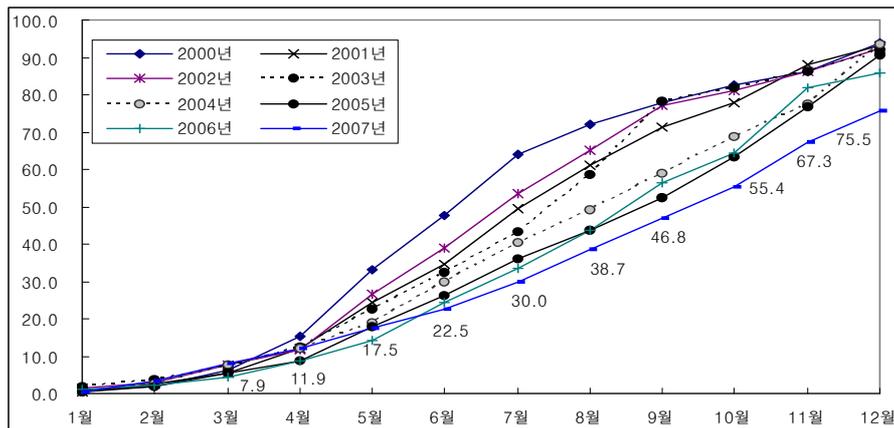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승진에 따른 인상분,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된 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교섭 타결현황』, 각년도.

[그림 3] 월별 임금교섭 진도를 추이



주: 10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조사임.
 자료: 노동부, 『임금교섭 타결현황』, 각년도.

3. 서비스업에서 낮은 임금상승률 기록

산업별 임금동향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을 비롯하여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서비스업 등의 저생산성 서비스업 부문에서 낮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제조업 등에서는 비교적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표 3> 산업별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천 원/월, %)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산업	2,127 (9.2)	2,255 (6.0)	2,404 (6.6)	2,542 (5.7)	2,683 (5.6)
제조업	2,018 (8.7)	2,209 (9.5)	2,388 (8.1)	2,523 (5.7)	2,689 (6.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689 (13.8)	3,838 (5.2)	4,101 (6.9)	4,307 (5.0)	4,649 (7.9)
건설업	2,072 (11.5)	2,130 (2.8)	2,123 (-0.3)	2,319 (9.2)	2,437 (5.1)
도소매업	2,089 (10.6)	2,175 (4.1)	2,408 (10.7)	2,543 (5.6)	2,693 (5.9)
숙박 및 음식점업	1,439 (5.4)	1,513 (5.1)	1,600 (5.8)	1,615 (0.9)	1,622 (0.4)
운수업	1,836 (11.1)	1,926 (4.9)	2,111 (9.6)	2,182 (3.3)	2,298 (5.3)
통신업	3,585 (3.6)	3,642 (1.6)	3,698 (1.6)	3,752 (1.5)	4,070 (8.5)
금융 및 보험업	3,310 (12.6)	3,539 (6.9)	3,748 (5.9)	4,077 (8.8)	4,403 (8.0)
부동산 및 임대업	1,350 (9.4)	1,387 (2.7)	1,520 (9.6)	1,662 (9.3)	1,758 (5.8)
사업서비스업	2,046 (5.2)	2,185 (6.8)	2,291 (4.9)	2,465 (7.6)	2,590 (5.1)
교육서비스업	2,560 (7.0)	2,696 (5.3)	2,724 (1.0)	2,875 (5.5)	2,893 (0.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53 (7.1)	2,059 (5.4)	2,259 (9.7)	2,461 (8.9)	2,544 (3.4)
오락·문화운동서비스업	2,574 (13.2)	2,690 (4.5)	2,724 (1.2)	2,803 (2.9)	2,858 (1.9)
기타 서비스업	1,861 (8.6)	1,932 (3.8)	2,010 (4.1)	2,036 (1.3)	2,156 (5.9)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4. 사업체 규모간 임금격차 확대

2006년에 줄어들었던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2007년에는 대규모 사업체에서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여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다시 다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4 참조). 5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7.6%를 기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5~9인 규모 사업체는 3.7%의 낮은 임금상승률을 보였다.

5~9인 규모 사업체의 2007년도 임금상승률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정액급여 상승률 3.9%, 초과급여 상승률 21.5%, 특별급여 상승률은 -0.3%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2007년도 소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둔화 현상은 경기둔화로 인한 특별급여 상승률 둔화가 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표 4> 규모별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천 원/월, %, 500인 이상=100.0)

	2005년 평균		2006년 평균		2007년 평균	
		격차		격차		격차
전규모	2,404 (6.6)	[67.9]	2,542 (5.7)	[69.4]	2,683 (5.6)	[68.1]
5~9인	1,783 (8.6)	[50.4]	1,886 (5.8)	[51.5]	1,957 (3.7)	[49.7]
10~29인	2,081 (7.0)	[58.8]	2,187 (5.1)	[59.7]	2,331 (6.6)	[59.2]
30~99인	2,259 (6.3)	[63.8]	2,413 (6.8)	[65.9]	2,574 (6.7)	[65.4]
100~299인	2,517 (5.4)	[71.1]	2,646 (5.1)	[72.3]	2,836 (7.2)	[72.0]
300~499인	2,822 (5.2)	[79.7]	2,943 (4.3)	[80.4]	3,064 (4.1)	[77.8]
500인 이상	3,541 (6.4)	[100.0]	3,660 (3.4)	[100.0]	3,939 (7.6)	[100.0]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안은 5~9인 규모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의 임금지수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5.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상승률 기록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를 정규, 비정규직으로 나누고 정규직 근로자를 다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구분하여 임금추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2007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08천 원으로 전년대비 5.3%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276천 원으로 전년대비 6.5% 상승하여 정규직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규직을 다시 정규 상용직과 정규 임시·일용직으로 나누어 보면 2007년 정규 상용

<표 5> 정규·비정규직의 종사상 지위별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천 원/월, %)

	정규직			비정규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02	1,456 (-)	1,790 (-)	968 (-)	977 (-)
2003	1,678 (15.3)	2,016 (12.6)	1,055 (9.0)	1,028 (5.3)
2004	1,771 (5.6)	2,118 (5.0)	1,092 (3.5)	1,152 (12.0)
2005	1,846 (4.2)	2,199 (3.8)	1,108 (1.5)	1,156 (0.4)
2006	1,908 (3.4)	2,270 (3.2)	1,171 (5.6)	1,198 (3.6)
2007	2,008 (5.3)	2,397 (5.6)	1,181 (0.8)	1,276 (6.5)

주: 1) 정규·비정규직 구분은 노동부 기준에 따랐으며, 정규직 내의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구분은 종사상 지위 구분에 따랐음.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직의 임금상승률은 5.6%인 반면, 정규 임시·일용직의 임금상승률은 2006년보다 대폭 낮아진 0.8%에 그쳐 정규직 내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정규 임시·일용직의 임금상승률이 크게 낮은 이유는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6. 임금소득 분배구조 악화 지속

임금소득에 대한 분배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2007년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0.340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보다 악화된 수치이다. 임금소득 분배구조의 악화 추세는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표 6 참조), 이러한 추세는 지니계수 외에 분위수 배율(Percentile ratio)의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분위수 배율은 임금수준에 따라 10분위로 구분한 후, 각 분위의 경제점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비율이다.

하위 10% 기준 경계소득 대비 상위 10% 기준 경계소득의 배율인 P90/P10은 2007년 들어 확대되었다. 그런데 P90/P10을 아래와 같이 P90/P50과 P50/P10으로 나누면, 임금소득분배의 변화가 어떤 소득계층에 의해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고임금 근로자와 중간임금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중간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간의 임금격차에 의해 결정된다.

$$\frac{P90}{P10} = \frac{P90}{P50} \times \frac{P50}{P10}$$

<표 6>을 보면, P50/P10은 2006년에 크게 증가하여 2007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

<표 6> 임금소득 분배 추이(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평균값(천 원)	중위값(천 원)	지니계수	P90/P50	P50/P10	P90/P10
2000	1,143	1,000	0.317	2.00	2.13	4.26
2001	1,242	1,000	0.322	2.20	2.00	4.40
2002	1,325	1,100	0.319	2.27	2.20	5.00
2003	1,466	1,200	0.329	2.33	2.18	5.09
2004	1,542	1,300	0.329	2.31	2.17	5.00
2005	1,593	1,300	0.333	2.31	2.17	5.00
2006	1,656	1,450	0.333	2.07	2.42	5.00
2007	1,745	1,500	0.340	2.13	2.42	5.16

주: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균등,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불균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7〉 임금소득 분배 추이(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평균값(천 원)	중위값(천 원)	지니계수	P90/P50	P50/P10	P90/P10
2000	1,643	1,409	0.300	2.00	2.01	4.03
2001	1,748	1,489	0.302	2.03	2.01	4.09
2002	1,880	1,596	0.305	2.08	2.02	4.20
2003	2,038	1,700	0.312	2.12	2.03	4.31
2004	2,175	1,806	0.314	2.16	2.02	4.38
2005	2,333	1,937	0.319	2.18	2.05	4.46
2006	2,476	2,022	0.322	2.23	2.04	4.55

주: 1)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균등,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불균등을 나타냄.

2) 평균값은 정액+초과+전년도 특별급여/12로 계산하였음.

3) 2006년도가 최신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고 있다. 이는 저임금계층의 소득지위가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말한다. 2007년 들어 임금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한 것은 저임금 근로자의 상대임금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고임금 근로자의 상대임금이 다소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임금소득 분배의 악화추세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비록 2006년까지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지니계수를 비롯한 소득분배 지수들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고임금 근로자의 상대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임을 볼 수 있다(표 7 참조).

II. 2008년 임금상승률 전망

1. 2008년에도 경영계 제시율과 노동계 요구율의 차이 커

2008년도 노동계의 임금상승 요구율을 보면 한국노총은 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그리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정규직의 경우 9.1%, 비정규직은 18.1%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해소, 생계비 확보 등을 목표로 8.0~11.4%의 인상률을 요구하였다.

반면 경영계의 임금상승 제시안은 물가와 임금상승간의 악순환 단절, 임금안정과 유연성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노동계보다 낮은 2.6%를 제시하였다.

<표 8> 경영계의 제시율과 노동계의 요구율 및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

	경영계(경총)	노동계		명목임금 상승률
		한국노총	민주노총	
1997	0.0	11.2	10.6	7.0
1998	-25.0	4.7	7.2	-2.5
1999	0.0	5.5	7.7	12.1
2000	5.4	13.2	15.2	8.0
2001	3.5	12.0	12.7	5.1
2002	4.1	12.3	12.5	11.2
2003	4.3	11.4	11.1	9.2
2004	3.8	10.7	10.5	6.0
2005	3.9	9.4	9.3	6.6
2006	2.6	9.6	9.1	5.7
2007	2.4	9.3	9.0	5.6
2008	2.6	9.1	8.0 ~ 11.4	-

- 주: 1) 1999년 경총은 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은 동결, 진행중인 기업은 임금삭감을 제시함.
 2) 2004년 경총은 3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300인 미만 기업은 3.8% 인상을 제시함.
 3) 2005년 경총은 1,0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1,000인 미만 기업은 3.9% 인상을 제시함.
 4) 2006년 경총은 수익성 저하 기업과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6% 인상을 제시함.
 5) 2007년 경총은 대출 초임 및 고임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4% 인상을 제시함.
 6) 2008년 경총은 고임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6% 인상을 제시함.

자료: 한국경총·한국노총·민주노총 및 노동부 발표자료, 각년도.

2. 경기 둔화, 높은 물가가 임금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듯

2008년 임금상승률은 크게 경제성장률, 취업자 증가율, 물가상승률 등의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2008년 경제성장률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2007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임금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은 290천 명에 머물러(한국노동연구원 전망치), 2007년의 282천 명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 압박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등의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외 요인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물가상승은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 생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2008년

<표 9> 주요 기관의 2008년 경제전망

(단위: %)

		경제 성장률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 출	수 입	소비자 물가	실업률
한국은행 (2007. 12)	연 간	4.7	4.3	6.4	2.8	10.3	10.2	3.3	3.2
	상반기	4.9	4.5	4.5	1.6	9.4	8.6	3.5	3.3
	하반기	4.4	4.0	8.3	3.9	11.1	11.7	3.1	3.1
KDI (2007. 10)	연 간	5.0	4.5	6.2	4.3	10.9	13.2	2.8	3.2
LG경제연구소 (2007. 12)	연 간	4.9	4.4	6.7	4.5	12.9	15.8	3.2	3.1
삼성경제연구소 (2008. 3)	연 간	4.7	4.3	6.7	2.9	10.6	13.0	3.3	3.2
한국경제연구원 (2007. 12)	연 간	5.1	4.8	8.0	2.8	8.4	9.2	3.2	3.2

1~2월 평균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이미 3.7%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물가 불안의 임금상승 반영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의 임금교섭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 2008년, 6.0%의 임금상승률을 전망

2008년 임금상승률을 전망하기 위해서 1987년 이후 과거 연도별 실적치(1987~2007년 자료)를 이용한 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하였는데, 임금은 장기적으로 물가격차, 생산성, 실업률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추정할 결과 2008년에는 경기둔화와 생산성 정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인상률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07년의 임금상승률 5.6%보다 0.4%포인트 높아진 연간 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¹⁾ **KL**

1) 참고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성 증가에 조응하는 임금상승률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도출된다.

$$\text{임금인상률} = \text{실질경제성장률} + \text{소비자물가상승률} - \text{취업자 증가율}$$

이와 같은 산식을 통해 2007년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을 계산하여 보면, 경제성장률(한국은행 4.7%) 및 물가상승률(한국은행 3.3%), 취업자증가율(한국노동연구원 1.2%)이 전망치대로 실현될 경우 약 6.8%의 임금인상률이 전망된다.

<표 10> 거시경제변수와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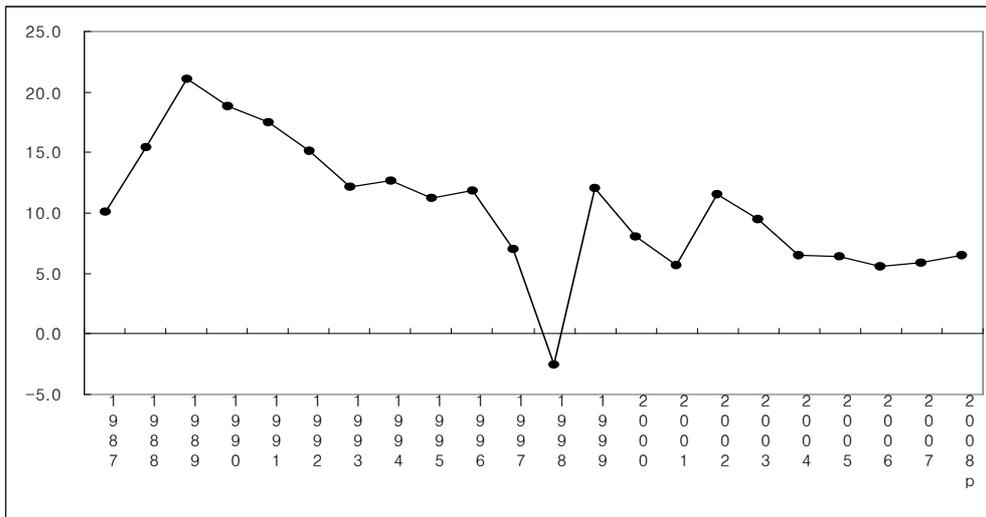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명목임금 상승률
2000	8.5	2.3	4.3	8.0
2001	3.8	4.1	2.0	5.1
2002	7.0	2.8	2.8	11.2
2003	3.1	3.5	-0.1	9.2
2004	4.7	3.6	1.9	6.0
2005	4.2	2.8	1.3	6.6
2006	5.0	2.2	1.3	5.7
2007	4.9	2.5	1.2	5.6
2008p	4.7	3.3	1.2	6.0

주: 1) 명목임금 상승률은 사업체 규모 5인 이상 상용근로자 기준임.

2) 2008년 중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취업자 증가율과 명목임금 상승률은 한국노동연구원 전망치임.

[그림 4] 연도별 임금상승률 추이 및 전망(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및 한국노동연구원 전망치.